

[큐티 클리닉 1]

‘참된 묵상’이란 무엇일까요?

이상규 목사 / 2001 / 페이지수: 2

요즘 QT가 잘 되십니까? QT는 기본이라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시지요? 분명 어딘가에 문제가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잘 모르겠고 또 문제를 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막연하지는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얘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나의 원’ 때문에

우선 ‘준비기도’ 문제를 다루어 보고 싶습니다. 물론 여기서 준비기도란 QT하기 전에 드리는 기도를 말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어제에 대한 감사 또는 회개 그리고 ‘오늘의 QT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라는 간구가 포함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드리는 준비기도에 대해 적어도 세 가지 핵심적인 내용이 포함되기를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1.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자기 부인)
2.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유보 없는 헌신)
3. 성령의 임재와 인도

여러분은 왜 제가 특별히 이 세 가지 내용을 준비기도 안에 포함시켰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이 드리던 기도와 비교해 보면서 이 들을 읽으시면 구체적인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첫째는 아침에 눈뜨자마자 우리는 마음속에 가득한 ‘나의 원’을 느낍니다. 그것은 어제의 기억일 수도 있고 무의식 속에 늘 억압되었던 욕구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오늘 직면해야만 하는 자녀, 사업, 계획들에 대한 염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QT본문을 읽는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는 그때 본문 속에서 내 속의 욕구와 염려, 계획에 공감되는 말씀이 ‘마음에 와 닿는’ 체험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런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의 눈에는 음식점 간판이 아주 크게 보이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준비기도란?

구약의 관점에서 볼 때 준비기도의 참된 본질은 제단에서 드리는 제사와 같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단을 통과해야만 하며 그 제단에서 치러지는 제사로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음을 말합니다. 또한 알거니와 이러한 제사 정신의 요체는 완전한 자기 부인과 헌신, 회개와 감사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지성소적 교제를 여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준비기도란 구약의 모든 제사를 단번에 완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자아’가 주와 함께 못 박혀 죽음으로써 마음속에 갖고 있던 기존의 욕심, 염려, 고정관념, 죄,

안일함 등을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늘 보좌 지성소에서 들려주실 하나님의 새로운 음성 (관점, 계획, 뜻)앞에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온전한 '준비기도'를 하게 되면¹ 오히려 자기중심적이고 주관주의적인 태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며 철저히 하나님 보시는 대로의 관점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오로지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게 되는데 이것 또한 신비주의가 아니라 진리의 영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큐티에 있어서 준비기도는 '잠깐' 드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깊이 간절히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눅 9:23)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마 26:39)라는 주님의 기도가 날마다의 삶에서 실현될 것입니다.

-‘에덴의 삶을 회복하는 큐티’에서

* 출처 : 온누리신문 (큐티와 일대일)